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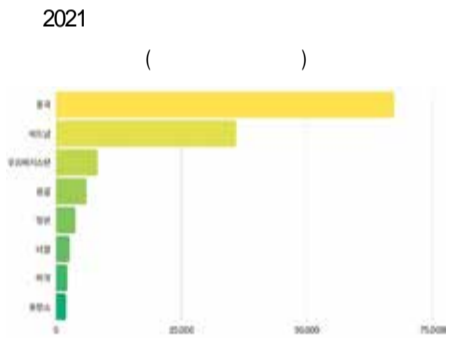
한중 수교 30주년 기획\_ 저장대 학생기자단

# 유학 맛집 한국, 中 유학생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6명에서 출발한 국내 체류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09년에 6만 명을 넘어서며 수교 18년 만에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사드(THAAD) 이슈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의 유학생 교류 저해가 우려됐지만, 우려만큼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양국의 견고한 유학생 교류는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在韓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집계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5만 2281명이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6만 7348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44.2%를 차지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재한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내보낸 베트남(35,843명)보다도 2배 가량 많은 압도적 비중을 보인다.



전체 중국인 유학생 중 어학연수생은 5024명, 학사과정 재학생은 3만 7267명, 석사과정 재학생은 1만 3686명, 박사과정 재학생은 8,821명, 기타연수 2,550명으로 집계돼 각 과정에 고루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중 가장 큰 변화추이를 보인 건 박사과정 재학생 수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1 외국인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중국 유학생 박사는 63.5%로, 2015년 42.2%에 비해 대폭 확대된 수치를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꼽은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이유로는 '연구 환경이 좋아서(30.9%)'가 가장 많았고, '교육의 질이 좋아서(23.9%)', '학비 지원이 많아서(18.7%)'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통계를 시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한류 열풍으로 인한 국격 상승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의 영향을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이 증가한 이유로 분석했다.

中

덩샤오핑(邓小平) 전 중국주석이 실시한 개혁개방 정책은 '국비유학(公派留学)'을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지정했고, 1978년부터 본격적인 국비유학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5단계의 여러 발전을 거쳐 법제화, 제도화됐다. 2003년 국비유학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는 중점 지원할 7가지 분야(에너지원, 환경, 원료, 정보, 농업, 생명과학, WTO 가입과 연관된 인문 사회 영역)를 지정했으며, 두 번째로 기존에 '보통방문학자(普通访问学者)'와 '고급방문학자(高级访问学者)'로 나뉘어있던 유학 인원의 분류를 '방문학자(访问学者)'로 통합하고, '고급연구학자(高级研究学者)' 항목을 신설했다.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자비 유학은 전면 금지였지만, 1980년대 이후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1981년 1월 1일 국무원이 교육부, 외교부 등 7개 부문이 제출한 <자비출국유학에 관한 지시요청(关于自费出国留学的请示)>과 <자비출국유학에 대한 임시시행규정(关于自费出国留学的暂行

规定)>을 허가하며 '자비유학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단이고, 국비유학과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30년 동안 제도적 개선을 거치며 과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자비 유학이 가능하게 됐다.



의료보험료(월 2만 원), 어학 과정(분기별 80만 원), 학비(학기당 500만 원 한도 지원), 한국어우수자(月 10만 원), 연구비(학기당 21~24만 원), 논문인쇄비(50~80만 원), 귀국 준비금(10만 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 과정의 경우 선발 연도 3월 1일 기준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성적은 GPA 8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초청장학제도 이외에도 아시아 우수예술인재(AMA), 포스코 청암재단 등의 재단 장학금과 부산국제교류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 기업 장학금 제도 역시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어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제도가 뒷받침돼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발표된 논문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과 효율적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최봉환)'에 따르면 지리적 접근성과 대학 홍보, 국가인지도, 교육의 질, 유학생 장학금 제도 등이 한국의 유학생 유인요인으로 분석됐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한국 유학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점이 특이한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혹은 재학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고 조사됐다. 언어 구사 능력이 생활 적응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반적인 유학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육부는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Study in KOREA)'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에 공지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매년 약 2,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정부 장학금을 제공한다. 장학금 제공 항목은 항공료, 정착 지원금(20만 원), 생활비(월 90~100만 원),

한편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전략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내국인 대학 신입생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대학이 재정 충원을 이유로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땅한 제재 없이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의 질적 하락과 내국인 대학생들의 불만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인재 유입과 건강한 문화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지려면 제도적 보완과 적당한 양적 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상하이 중국교육부직속 전국중점대학



華東理工大學

## 2022년도 본과 유학생 모집

본 광고를 보여 주시면  
접수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연수생 600元

화동이공대 쉬후이 캠퍼스 **상하이 소재 대학 랭킹 5위**, QS글로벌 졸업생 경쟁력 랭킹 중국 내 16위

| 본과(학사) | 인기학과  | 학제             | 학비                                    | 특징   |
|--------|---|----------------|---------------------------------------|--|
| 중국어 강의 | 화학공학, 컴퓨터공학<br>지능공학, 공상관리<br>디지털 미디어 아트, 시각디자인  | 4년제<br>(9월 개강) | 22000元/년<br>26000元/년<br>(아트디자인&미디어학부) | 이·공·경제·경영·인문<br>법학·예술·교육 등<br>11개 학부를 포함한 종합대학 |
| 영어 강의  | Chem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br>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br>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 4년제<br>(9월 개강) | 22000元/년                              | 6개 영어강의 전공 선택 가능<br>영미권 유학 대비 높은 효율            |

※장기프로그램 신청자 중 기입국자 비자 연장 가능,  
미입국자 **학생비자 신청 가능**



지하철15호선  
华东理工大学

上海市徐汇区梅陇路130号

웹사이트 <http://ies.ecust.edu.cn>

온라인 접수 <http://apply.ecust.edu.cn>

☎ 021 6425 3279(韓) / 6425 3277(中/英)

✉ [cie@ecust.edu.cn](mailto:cie@ecust.edu.cn)